

【 국내금융 뉴스 】

새 경제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전망치 하향 조정

□ 세계경제 침체 등 대외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실물경제 위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소비·투자 등 내수가 크게 감소하고('08.12월말 소비: $\Delta 7\%$, 설비투자: $\Delta 24\%$) 수출도 '08.11월 이후 큰 폭의 감소세('09.1월 $\Delta 33\%$)를 보임.
- 금융·외환시장은 불안 국면이 다소 진정되고는 있으나, 부문별 자금경색이 지속되고 경기침체 심화에 따른 불안이 재연될 수 있음.

□ 이에 기획재정부의 새 경제팀에서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됨을 고려하여 성장·고용 등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견해임.

- 국내 성장과 관련해서는 내수·수출 동반 감소 등으로 연간 $\Delta 2\%$ 내의 성장이 예상되며, 성장 감소 등으로 취업자는 $\Delta 20$ 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함.
- 경상수지는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 감소 및 여행수지 개선 등으로 연간 130억 달러 내외의 흑자가 예상됨.

<2009년 경제 전망>

	당초 전망	수정 전망
경제성장률	3% 내외	$\Delta 2\%$ 내외
취업자 증감	10만명 내외	$\Delta 20$ 만명 내외
경상수지	100억 달러 이상	130억 달러 내외
소비자물가	3% 내외	2% 후반

□ 향후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면서 체질 개선을 통해 위기 이후 재도약을 준비할 것이며, 운용방식에 있어서는 현장중심의 정책과 함께 명확한 방향 제시와 일관성 있는 추진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 회복에 주력할 예정임.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기획재정부, 2/10)